

전일동향

전일 대비 0.10원 하락한 1,527.00원에 마감

19일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0.30원 상승한 1,537.40원에 개장했다. 미국과 이란의 순탄치 않은 종전 협상이 강달러 분위기를 형성했으나, 고점인식에 따른 수출업체 네고 물량의 출회로 전일 대비 0.10원 하락한 1,527.00원에 마감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17.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6.61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537.40	1539.60	1522.00	1527.00	1535.00
	엔화	946.07	956.06	943.83	946.61	-
	유로화	1749.64	1764.57	1741.79	1752.01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7	-3.22	-7.45	-16.23
	결제환율(수입)	-0.19	-1.98	-5.31	-12.69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지정학적 불확실성 재부상에...1,52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527.00) 대비 0.15원 상승한 1,526.00원 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재부상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상승 전망한다. 주말 간 미국과 이란이 대면 협상에 나섰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 및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무력 충돌 등을 둘러싸고 양국은 상당한 이견을 나타냈다. 실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란 국영방송은 트럼프가 대화 종료를 위협했다고 발언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지역 군사작전 지속 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었다. 이처럼 주요 쟁점의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부각됨에 따라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었고, 이는 금일 환율 상승 재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지속되고 있는 외환당국 경계감과 수출업체 네고 물량 출회 가능성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522.00 ~ 1535.33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555.1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15원 ↑
	■ 美 다우지수 : 0, 0p(0%)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6.1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9013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